

청소년의 문제행동 형성요인과 효율적 지도

허철수*

〈 목 차 〉

- | | |
|-----------------------------|---------------------------------------|
| I.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는
몇 가지 관점 | 종합적 요인 |
| II. 청소년들의 가정·학교생활
실태 | IV.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
| III. 청소년 문제행동을 형성하는 | |

I.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는 몇 가지 관점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장·발달과정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서 가정, 학교, 사회생활의 불만족 요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장·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 내적인 문제 또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지도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들이 청소년 문제를 규정하는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소년의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입장과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를 과정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결정론적으로 보느냐는 시각으로 이에 대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한 Wolf와 Gedo(1980)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른들이 청소년 문제를 보는 견해가 선진-개방국과 후진-폐쇄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선진-개방국들의 성인들은 청소년의 문제를 그들의 성장과정상의 문제로 보며 많은 적든 간에 모든 청소년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제들로 본다. 그리고 소위 비행이나 문제행동이라 일컫는 그들의 허다한 문제들도 문제해결 과정의 여러 종류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낙관적이고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후진-폐쇄국들의 성인들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문제를 악성 질병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로 보고 죄악시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도대책이나 방법도 전자는 예방적인 활동에 그 초점을 두고 기성세대의 견해 변화와 사회개혁을 통한 환경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도덕적·교육적 차원에서 금지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천없는 이론이나 토론만을 일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같이 하나의 청소년 문제를 두고 선진-개방국의 성인과 후진-폐쇄국의 성인간의 왜 이와 같은 시각차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비단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에서만 아니라 동일 사회내의 성인들 간에도 이와 같은 시각의 차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도 관계되나,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거시적으로 보고 인과적으로 추론하며 발달심리학적인 견지에서 구명해 가느냐, 아니면 청소년들을 미시적으로 보고 결과에만 집착하고 도덕이나 범죄학적인 근거에서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만 급급하느냐의 성인의 태도나 견해와도 깊이 관계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행동 그 자체보다도 먼저 문제 그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견해 정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청소년 문제를 보는 우리의 관심이 사회적 입장에서인가? 아니면 인간적 입장에서 보는가이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들이 밖으로 표출하고 저지르는 불미스럽고 불량하며, 반항하는 행동을 보고 곧잘 문제삼는다. 즉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청소년 비행에 국한시켜 그들을 사회적 문제의 주범으로 보는 경향이다. 약물복용, 가출, 자살, 폭행, 강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문제에는 비교적 둔감하며 관심이 없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청소년 문제는 성인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이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성인들의 일방적인 지도 아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 욕구좌절, 갈등, 문제의식 등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청소년들의 아픔과 고민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비행, 문제 청소년과 동일시하지 말고, 청소년 문제란 인생에서 가

장 예민한 감성대를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딪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행동 모두가 청소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살고 있는 환경, 청소년의 고민, 일상생활, 가치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로, “청소년의 문제는 어른 사회의 반영이다”라는 점이다.

청소년의 세계는 성인들의 세계와 따로 구별·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속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체험하는 방법은 어른과 청소년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청소년의 문화와 그들의 독특한 행동방식과 문제행동은 별개의 세계 속에서 형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해석하며 행동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학습된 것이기에 그들의 행동 특성들은 곧 어른 사회의 반영인 셈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문제 형성 배경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격히 성장,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성인들보다 많이 받으며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동에 미치는 어른 사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청소년에 관한 사회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비행에 국한시키는 입장은 협의의 개념에 따른 것으로서 살인이나 환각제 흡입, 가출, 자살, 강간, 폭행 등의 범죄나 무단결석, 음주, 흡연 등이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청소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 즉 그들의 고민, 욕구좌절, 갈등 등의 문제의식으로서 그 대상은 전체 청소년들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II. 청소년들의 가정·학교생활 실태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대부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한다. 이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는가는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행동양식을 지니게 된다. 본 장에서는 제주도내 학생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형성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있는 의식들을 파악한 것으로 초(5, 6학년), 중·고등학생 2,986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교급별로 조사한 결과(허철수 외, 1998)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지각상태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우 차갑다	33(2.3)	21(1.4)	11(2.0)	14(1.7)	29(1.8)	54(1.8)
냉 담	236(16.4)	212(14.0)	52(9.3)	126(15.2)	270(17.2)	448(15.1)
따뜻한 편	893(62.0)	935(61.6)	319(57.0)	523(63.1)	986(62.8)	1,828(61.8)
매우 따뜻	278(19.3)	350(23.1)	178(31.8)	166(20.0)	284(18.1)	628(21.2)
계	1,440(100.0)	1,518(100.0)	560(100.0)	829(100.0)	1,569(100.0)	2,958(100.0)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는 대부분 따뜻한 편이나(2,456명, 83%), 17%에 해당하는 502명은 매우 차갑거나 냉담한 가족 분위기로 지각하고 있다.

〈표 II-2〉 부모님과 가장 크게 겪는 갈등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치관의 차이	173(12.3)	253(17.2)	18(3.4)	85(10.5)	323(21.1)	426(14.8)
나의행동 불이해	326(23.2)	318(21.7)	146(27.5)	177(21.9)	321(20.9)	644(22.4)
성 격 차 이	67(4.8)	88(6.0)	36(6.8)	44(5.4)	75(4.9)	155(5.4)
대화의 어려움	72(5.1)	80(5.4)	23(4.3)	48(5.9)	81(5.3)	152(5.3)
무 관 심	28(2.0)	39(2.7)	18(3.4)	18(2.2)	31(2.0)	67(2.3)
차 별 대 우	45(3.2)	71(4.8)	44(8.3)	30(3.7)	42(2.7)	116(4.0)
부모님의 불화	39(2.8)	48(3.3)	11(2.1)	28(3.5)	48(3.1)	87(3.0)
심한간섭, 기대	391(27.8)	292(19.9)	114(21.5)	239(29.5)	330(21.5)	683(23.8)
폭 력	6(0.4)	6(0.4)	1(0.2)	3(0.4)	8(0.5)	12(0.4)
경제적 문제	138(9.8)	134(9.1)	44(8.3)	66(8.1)	162(10.6)	272(9.5)
기 타	121(8.6)	139(9.5)	76(14.3)	72(8.9)	112(7.3)	260(9.0)
계	1,406(100.0)	1,468(100.0)	531(100.0)	810(100.0)	1,533(100.0)	2,874(100.0)

〈표 II-2〉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갈등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자녀에 대한 심한 간섭과 기대로서 조사대상 2,874명 중 683명(23.8%)이며, 다음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644명, 22.4%)이 두 번째 큰 갈등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426명, 14.8%) 순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겪게 되는 심한 갈등요소인 심한 기대와 간섭, 몰이해, 가치관의 차이 등은 가족간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표 II-3〉은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알아본 것이다.

〈표 II-3〉 부모님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도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적으로 그렇다	179(12.4)	253(16.7)	123(22.1)	121(14.6)	188(12.0)	432(14.6)
다 소 그 령 다	532(37.0)	637(42.0)	245(44.1)	352(42.4)	572(36.5)	1,169(39.6)
별로 그렇지 않다	571(39.7)	479(31.6)	154(27.7)	274(33.0)	622(39.7)	1,050(35.5)
전혀 그렇지 않다	157(10.9)	146(9.6)	34(6.1)	83(10.0)	186(11.9)	303(10.3)
계	1,439(100.0)	1,515(100.0)	556(100.0)	830(100.0)	1,568(100.0)	2,954(100.0)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관심이 있으나(1,601명, 54.2%), 전체 45.8%에 해당하는 1,353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이 없거나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이야기 거리에 대하여 부모들이 대체로 경청하고 있으나(1,885명, 63.9%), 36.1%에 해당하는 1,067명은 자녀들의 이야기 상대로서 소극적이거나, 매우 소극적이라고 밝히고 있다(〈표 II-4〉 참조).

〈표 II-4〉 나의 이야기에 대한 부모님의 경청 정도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적으로 그렇다	316(22.0)	333(22.0)	247(44.6)	180(21.7)	222(14.2)	649(22.0)
다 소 그 령 다	617(42.9)	619(40.9)	211(38.1)	363(43.7)	662(42.2)	1,236(41.9)
별로 그렇지 않다	392(27.2)	436(28.8)	72(13.0)	228(27.4)	528(33.7)	828(28.0)
전혀 그렇지 않다	114(7.9)	125(8.3)	24(4.3)	60(7.2)	155(9.9)	239(8.1)
계	1,439(100.0)	1,513(100.0)	554(100.0)	831(100.0)	1,567(100.0)	2,952(100.0)

〈표 II-5〉에서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모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력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조력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953명의 대상자 중 69.2%에 해당하는 2,044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부모들이 조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 II-5〉 자녀의 문제해결에 대한 부모의 조력정도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적으로 그렇다	102(7.1)	95(6.3)	96(17.2)	54(6.5)	47(3.0)	197(6.7)
다 소 그 령 다	345(24.0)	367(24.2)	195(35.0)	214(25.8)	303(19.3)	712(24.1)
별로 그렇지 않다	688(47.8)	730(48.2)	198(35.5)	404(48.7)	816(52.1)	1,418(48.0)
전혀 그렇지 않다	304(21.1)	322(21.3)	68(12.2)	157(18.9)	401(25.6)	626(21.2)
계	1,439(100.0)	1,514(100.0)	557(100.0)	829(100.0)	1,567(100.0)	2,953(100.0)

〈표 II-6〉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표 II-6〉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 우 높 다	320(10.9)	181(12.6)	139(9.3)	132(24.4)	50(6.1)	138(8.8)
약 간 높 다	1176(40.1)	606(42.3)	570(38.0)	273(50.6)	362(43.9)	541(34.5)
약 간 낮 다	1134(38.7)	495(34.6)	639(42.6)	98(18.1)	351(42.6)	685(43.7)
매 우 낮 다	301(10.3)	149(10.4)	152(10.1)	37(6.9)	61(7.4)	203(13.0)
계	2,931(100.0)	1,431(100.0)	1,500(100.0)	540(100.0)	824(100.0)	1,567(100.0)

전체 응답수를 보면, 약간 높다(40.1%), 약간 낮다(38.7%), 매우 높다(10.9%), 매우 낮다(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분화하면 약간 높거나 매우 높음이 51.0%로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고 보는 49.0% 보다 미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반수는 긍정적으로, 반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족	1123(38.3)	582(40.9)	541(35.9)	396(72.3)	333(40.4)	394(25.3)
불 만 족	1806(61.7)	842(59.1)	964(64.1)	152(27.7)	491(59.6)	1163(74.7)
계	2,929(100.0)	1,424(100.0)	1,505(100.0)	548(100.0)	824(100.0)	1,557(100.0)

〈표 II-7〉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서 전체 응답자의 61.7%가 불만족하다고 했고 38.3%만이 만족하다고 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40.9%가 만족하고 있고 59.1%가 불만족이며 여학생의 35.9%가 만족, 64.1%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여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불만족스럽다고 반응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72.3%, 중학생 40.4%, 고등학생 25.3%가 만족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27.7%, 중학생 59.6%, 고등학생 74.7%가 불만족으로 대답했다. 이는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학교 생활에 불만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8〉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런 이유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시설 미비	153(8.4)	64(7.5)	89(9.2)	15(9.1)	62(12.4)	76(6.5)
입시위주 교육	460(25.2)	232(27.0)	228(23.6)	4(2.4)	97(19.4)	359(30.9)
재미없는 수업	450(24.6)	186(21.7)	264(27.3)	45(27.4)	127(25.3)	278(23.9)
교 수 방 법	303(16.6)	127(14.8)	176(18.2)	14(8.5)	74(14.8)	215(18.5)
지나친 과제	54(3.0)	34(4.0)	20(2.1)	29(17.7)	13(2.6)	12(1.0)
친구와의 갈등	107(5.9)	41(4.8)	66(6.8)	15(9.1)	32(6.4)	60(5.2)
집단 따돌림	19(1.0)	9(1.0)	10(1.0)	4(2.4)	8(1.6)	7(0.6)
교사와의 갈등	104(5.7)	56(6.5)	48(5.0)	19(11.6)	20(4.0)	65(5.6)
학급, 교내폭력	83(4.5)	59(6.9)	24(2.5)	9(5.5)	51(10.2)	23(2.0)
기 타	94(5.1)	51(5.9)	43(4.4)	10(6.1)	17(3.4)	67(5.8)
계	1,827(100.0)	859(100.0)	968(100.0)	164(100.0)	501(100.0)	1,162(100.0)

〈표 II-8〉은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런 이유이다. 전체를 보면, 입시위주 교육(25.2%), 재미없는 수업(24.6%), 교수방법(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입시위주 교육(27.0%), 재미없는 수업(21.7%), 교수방법(14.8%) 순이고, 여학생은 재미없는 수업(27.3%), 입시위주 교육(23.6%), 교수방법(1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9〉 학교 공부의 어려움 정도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우 힘들	421(14.2)	214(14.8)	207(13.7)	24(4.3)	95(11.5)	302(19.3)
약간 힘들	1608(54.4)	764(53.0)	844(55.7)	218(39.0)	487(58.7)	903(57.6)
별로 안 힘들	811(27.4)	406(28.2)	405(26.8)	266(47.6)	220(26.5)	325(20.7)
전혀 안 힘들	116(3.9)	58(4.0)	58(3.8)	51(9.1)	27(3.3)	38(2.4)
계	2,956(100.0)	1,442(100.0)	1,514(100.0)	559(100.0)	829(100.0)	1,568(100.0)

〈표 II-9〉는 학교 공부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가 어떤가에 대한 문항이다. 전체 응답수를 보면, 힘들다(54.4%)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별로 힘들지 않다(27.4%), 매우 힘들다(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68.6%의 학생이 학교공부를 힘들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볼 때도 전체순위와 남녀 차이가 별로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볼 때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 공부에 대해 힘들거나 매우 힘들다고 나타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등학생: 76.9%, 중학생: 67.2%, 초등학생: 43.3%).

〈표 II-10〉 학교 공부가 힘든 이유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체 력 부 족	189(6.8)	103(7.5)	86(6.0)	42(8.5)	64(8.1)	83(5.5)
지적능력부족	204(7.3)	101(7.3)	103(7.2)	60(12.1)	51(6.5)	93(6.1)
기초실력부족	848(30.3)	383(27.9)	465(32.7)	71(14.3)	234(29.7)	543(35.9)
흥 미 결 여	1,092(39.0)	531(38.6)	561(39.4)	184(37.0)	296(37.6)	612(40.4)
학습태도불량	214(7.6)	126(9.2)	88(6.2)	60(12.1)	60(7.6)	94(6.2)
기 타	251(9.0)	131(9.5)	120(8.4)	80(16.1)	82(10.4)	89(5.9)
계	2,798(100.0)	1,375(100.0)	1,423(100.0)	497(100.0)	787(100.0)	1,514(100.0)

〈표 II-10〉은 학교 공부가 힘든 이유들이다. 전체 응답수를 보면, 흥미결여(39.0%), 기초실력 부족(30.3%), 기타(9.0%), 학습태도의 불량(9.0%)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기초실력이 부족하여 공부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성별로 나누어 볼 때도 남녀 차이가 전체 순위와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볼 때는 초등학생인 경우는 흥미결여(37.0%), 기타(16.1%), 기초실력 부족(14.3%), 능력 부족(12.1%) 순으로 힘든 원인이 다양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흥미결여(고등학생: 40.4%, 중학생: 37.6%), 기초실력 부족(고등학생: 35.9%, 중학생: 29.7%) 순으로 전체순위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좀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1〉 학교에 다니기 싫은 정도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그렇다	156(5.3)	68(4.8)	88(5.8)	24(4.4)	36(4.4)	96(6.1)
다소 그렇다	570(19.4)	258(18.0)	312(20.7)	49(8.9)	144(17.5)	377(24.1)
별로 안 그렇다	1,124(38.2)	528(36.9)	596(39.5)	117(21.2)	349(42.3)	658(42.1)
전혀 안 그렇다	1,090(37.1)	577(40.3)	513(34.0)	361(65.5)	296(35.9)	433(27.7)
계	2,940 (100.0)	1,431 (100.0)	1,509 (100.0)	551(100.0)	825(100.0)	1,564 (100.0)

〈표 II-11〉은 학교에 다니기 싫은 정도로서 전체의 75.3%가 다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24.7%만이 다니기 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22.8%, 여자 26.5%가 다니기 싫어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13.3%, 중학생 21.9%, 고등학생 30.2%가 학교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학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학교생활 중도 포기에 대한 태도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결코 없다	1,705(58.1)	820(57.5)	885(58.7)	387(71.0)	475(57.6)	843(53.9)
피하고 싶다	653(22.3)	323(22.7)	330(21.9)	70(12.8)	186(22.6)	397(25.4)
그저 그렇다	436(14.9)	220(15.4)	216(14.3)	79(14.5)	129(15.7)	228(14.6)
가능성 많다	86(2.9)	41(2.9)	45(3.0)	6(1.1)	18(2.2)	62(4.0)
빨리하고 싶다	53(1.8)	22(1.5)	31(2.1)	3(0.6)	16(1.9)	34(2.2)
계	2,933(100.0)	1,426(100.0)	1,507(100.0)	545(100.0)	824(100.0)	1,564(100.0)

〈표 II-12〉는 학교생활 중도 포기에 대한 태도반응이다. 전체 응답자의 80.4%가 중도 포기를 하

지 않겠다고 했고 4.7%만이 중도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반응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 80.2%, 여학생 80.6%가 중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3.8%, 중학생 80.2%, 고등학생 79.5%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중도 포기 가능성은 초등학생 1.7%, 중학생 4.1%, 고등학생 6.2% 순으로 반응했다.

〈표 II-13〉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꼭 필요	736(24.9)	414(28.8)	322(21.3)	310(56.0)	229(27.6)	197(12.6)
약간 필요	1,259(42.7)	587(40.8)	672(44.4)	206(37.2)	384(46.3)	669(42.7)
별로 필요없음	791(26.8)	362(25.2)	429(28.4)	31(5.6)	174(21.0)	586(37.4)
전혀 필요없음	165(5.6)	76(5.3)	89(5.9)	7(1.3)	42(5.1)	116(7.4)
계	2,951(100.0)	1,439(100.0)	1,512(100.0)	554(100.0)	829(100.0)	1,568(100.0)

〈표 II-13〉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의 6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2.4%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69.6%, 여학생이 65.7%로 필요하다고 반응했고 남·여의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93.2%, 중학생 73.9%, 고등학생 55.3% 순으로 나타나서 학교급별이 낮아질수록 학교의 교육내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14〉 교사와 학생간의 좋은 관계에 대한 인식

(%)

구 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그렇다	227(7.8)	132(9.3)	95(6.3)	137(25.1)	54(6.6)	36(2.3)
다소 그렇다	1,134(38.7)	581(40.9)	553(36.7)	274(50.3)	340(41.4)	520(33.3)
별로 안 그렇다	1,165(39.8)	522(36.7)	643(42.7)	101(18.5)	325(39.6)	739(47.3)
전혀 안 그렇다	401(13.7)	187(13.2)	214(14.2)	33(6.1)	102(12.4)	266(17.0)
계	2,927(100.0)	1,422(100.0)	1505(100.0)	545(100.0)	821(100.0)	1,561(100.0)

〈표 II-14〉는 학생 자신이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것이다.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학생은 1,361명으로 전체의 46.5%이다. 그러나 53.5%에 달하는 학생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표 II-15〉 가장 싫어하는 교사의 유형 (%)

구분	계	성 별		학 교 급 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편애	627(21.4)	232(16.3)	395(26.3)	65(11.8)	213(26.0)	349(22.4)
실력 부족	101(3.5)	35(2.5)	66(4.4)	14(2.6)	22(2.7)	65(4.2)
언어폭력 및 체벌	716(24.5)	384(27.0)	332(22.1)	228(41.5)	186(22.7)	302(19.4)
거짓말	56(1.9)	30(2.1)	26(1.7)	23(4.2)	9(1.1)	24(1.5)
교수방법 부족	198(6.8)	91(6.4)	107(7.1)	16(2.9)	61(7.5)	121(7.8)
유모어 부족	49(1.7)	32(2.3)	17(1.1)	15(2.7)	20(2.4)	14(0.9)
융통성 부족	81(2.8)	44(3.1)	37(2.5)	8(1.5)	17(2.1)	56(3.6)
계으름	31(1.1)	18(1.3)	13(0.9)	4(0.7)	9(1.1)	18(1.2)
학생 이해부족	563(19.3)	286(20.1)	277(18.4)	114(20.8)	177(21.6)	272(17.5)
복종강요	502(17.2)	269(18.9)	233(15.5)	62(11.3)	104(12.7)	336(21.6)
계	2,924(100.0)	1,421(100.0)	1,503(100.0)	549(100.0)	818(100.0)	1,557(100.0)

〈표 II-15〉는 가장 싫어하는 교사의 유형에 대한 반응이다. 전체 응답자를 살펴보면 언어폭력 및 체벌(24.5%), 편애(21.4%), 학생이해 부족(19.3%), 복종강요(1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언어폭력 및 체벌(27.0%), 학생이해 부족(20.1%), 복종강요(18.9%), 편애(16.3%) 순이고 여자는 편애(26.3%), 언어폭력 및 체벌(22.1%), 학생이해 부족(18.4%), 복종강요(15.5%)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폭력을, 여자는 편애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언어폭력 및 체벌(41.5%), 학생이해 부족(20.8), 편애(11.8%), 복종강요(11.3%) 순이고 중학생은 편애(26.0%), 언어폭력 및 체벌(22.7%), 학생이해 부족(21.6%), 복종강요(12.7%) 순이며 고등학생은 편애(22.4%), 복종강요(21.6%), 언어폭력 및 체벌(19.4%), 학생이해 부족(17.5) 순으로 나타났다.

Ⅲ. 청소년 문제행동을 형성하는 종합적 요인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학교환경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요인

청소년 문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감소되었을 때, 그리고 이를 학교가 조기발견하여 교정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에 대한 학생의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즉, 학교에 대한 학생의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으로는 교사 및 또래와의 성공적인 관계, 성공적인 학업성취이다.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가 이를 다루는 교칙운영 방식도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요인**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어느 정도 애착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전념하는 교사와의 애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와 애착형성이 강할수록 학생은 학교생활에 전념하게 되고, 교사와 애착형성이 낮을수록 학생은 학교로부터 멀어진다(김준호 외, 1992). 학생과 교사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 자신의 성격요인(이영덕, 1987), 교사요인,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다.

●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요인**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을 갖게 하는 다른 요인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와 애착에 대한 많은 연구(옥일남, 1991; 윤정한, 1988)에 의하면, 학생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애착이 강하고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 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불만족할수록 학생들은 학교에 애착을 덜 느낀다고 한다. 문제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학교내 학업성취관련 요인**으로서 조직이 구성원에게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구성원이 조직 내의 다양한 과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업성취감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과업성취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자아존중감을 획득할 수 있고 조직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 학

교가 구성원에게 학업 및 관련과업에 참여하고 과업성취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문제 청소년들의 학교내 과업성취여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학교체제는 일부의 학생에게는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적절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과 관련하여 도전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적절히 도전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하지만, 학습 이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히 도전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곳이 되어 문제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조직에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구성원 각자가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학교는 학생 각자가 능력과 스타일에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조직은 학습에 대한 기본능력을 갖추고 선수학습이 충분히 준비되고 구조화된 학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위의 능력이나 성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학습상황에 흥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교의 수업진행방식은 상위권 학생의 대학입시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수업진행방식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만 형성하게 한다.

● **학교상담기능의 약화이다.** 어떤 조직이든 생명력있는 조직은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조직이 부여하는 과업에 충실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는 학생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이 가족내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만약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많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학교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 인	관 련 된 사 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방임 등으로 학생관계 미형성 · 교칙의 경직성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관계 악화 · 교칙운영의 차별성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관계 악화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가중 · 교내 폭력으로 인한 학교공포 · 불량교우 접촉

요 인	관 련 된 사 건
학업성취 구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협된 교과과정으로 인하여 학업 이외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에의 무관심 · 학업우수생 중심의 수업진행으로 인한 학업저조생의 학업의욕 상실
중퇴 의사결정과 처리과정의 비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없이 전학시킴 · 문제에 대한 개인 책임성만 강조 · 중퇴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중퇴처리됨
학교내 상담기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학생에 대한 방치 · 문제학생에 대한 자원 제공의 미흡

2. 가정환경적 요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가족환경이다. 문제 청소년들의 가정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 양육환경의 부적절성,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문제, 기타 위기적 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부과한다. 또한 학교생활을 위한 자원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학교나 가정 바깥에서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지 못하는 결과로서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겠다.

가정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계부 또는 계모 등 외형상의 구조적 결손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학교생활을 시작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제공을 어렵게 한다.

● **부적절한 양육환경** : 일반적으로 문제 청소년들의 가정은 신체적 심리적 보호와 안정의 제공,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훈육을 담당하며,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며 종교와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부모가 아닌 친척집에 맡겨지게 된다거나, 오랫동안 부모 중 한 사람이 지방 혹은 외국 근무 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부모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맞

별이 부부가 밤늦게까지 심야영업을 할 때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업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행친구들과의 접촉, 집안에서의 음란비디오 시청, 담배피우기 등 사소한 일탈행동들을 쉽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양육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고, 좌절이나 한계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약하며, 구조화된 상황에서 저항감과 반발심이 많아서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

●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 : 부모 또는 형제들의 개인적인 성향 또는 문제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가족 구성원 개인의 문제들로는 부 또는 모의 가출, 부 또는 모의 음주문제, 그리고 부 또는 모의 외도, 부의 놀음, 의처증,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부의 태도, 형제 중 한 사람의 가출이나 비행으로 인한 학교중퇴 등이 있다. 이러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문제는 그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관계하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역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상의 문제** :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부부불화가 심한 가정의 경우, 부가 모를 구타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신과 다른 형제들을 비교하며 심하게 편애하는 경우, 부모 대신 형제들이 더 엄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 고부간의 갈등, 형제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대화가 없고 무관심한 가족 등의 문제가 아동으로 하여금 비행으로 가는 촉발요인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관계에 관한 구조적 접근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가족구성원은 각자가 가진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은 외로움, 분노, 소외를 느끼게 되어 부적응행동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한다.

●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 : 문제 청소년들의 사례연구를 보면, 부모의 훈육의 부재 및 적절하지 못한 훈육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생활과악이 안되는 경우, 대안행동의 제시없이 무조건 야단치는 경우, 금지사항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부와 모의 훈육방식의 불일치, 부모가 아동이 잘못하였을 때에 과도하게 허용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감정적 체벌로 폭력·학대·구타를 경험하는 경우, 가족 중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부적절한 용돈 등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것들이다. Patterson의 비행 발전과정 연구에 의하면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이나 서툰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부적절하고 서툰 가정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동료와

교사로부터의 거부 또는 학업의 실패 등은 아동이 반사회적 동료집단에 참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훈육이 무력화되는 시점에서 노는 아이들과의 연합이 유력화됨으로써 훈육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박성수, 1993).

● 위기적 사건의 경험(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 마지막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잠재적 가정환경으로는 부의 실직 또는 갑작스런 사업실패 등으로 가족 전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나 이사 및 전학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런 과정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부적응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상으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가정환경적 요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 인	관 련 된 사 건
가족구조결손	· 부모사망, 부부이혼, 별거, 계부, 계모, 입양아
부적절한 양육환경	· 아동기 조부모 또는 친척에 의한 양육 · 아동기 부의 부재(지방 혹은 외국에서 근무) · 맞벌이 부부(부모의 심야영업)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	· 부 또는 모의 가출 경험 · 부 또는 모의 음주문제 · 부 또는 모의 외도, 놀음, 의처증 · 부가 권위적, 위압적임 · 형제의 비행(가출, 중퇴경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상의 문제	· 부부싸움, 불화 · 관계상의 문제, 부가 모를 구타 · 부모님의 편애, 차별대우 · 부모 대신 형제들이 더 엄하게 야단을 칩 · 고부간 갈등 · 형제와의 갈등 · 대화가 없는 가족(의사소통의 문제)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	· 자녀의 생활파악이 안됨 · 대체 행동없이 무조건 야단침 · 금지사항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함 · 부와 모의 훈육방식의 불일치 · 부모의 통제정도(과도하게 허용적, 통제가 안됨) · 부모로부터의 폭력, 학대, 구타경험(감정적 처벌) · 부적절한 용돈
위기적 사건의 경험	· 부의 실직, 사업실패 · 이사(전학)

3. 사회환경적 요인

청소년 문제는 학교가 학생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외부에서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외부에서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주요인은 청소년들의 즉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교육기회상실 및 장래준비를 저해한다고 하겠다.

● **유흥 및 향락문화** : 향락산업은 청소년들에게 유흥거리를 제공하며 일시적인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가출, 중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학교생활에서 재미와 의미를 상실한 청소년들이 일단 향락문화에 접촉하면 일시적인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학교나 가정에서 벗어나서도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영구적인 가출과 학교중퇴를 하게 된다.

● **유해매체** : 청소년기는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며, 급작스러운 생물학적 변화와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은 유해환경이 너무 많고 그 강도도 매우 강해서 문제청소년들을 만드는 데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유해인쇄 및 영상매체로서 불량만화, 성인만화, 음란소설, 음화, 폭력영화 및 음란비디오 등 청소년들에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성을 조장하여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경향성을 갖게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는 청소년이 아직 독자적인 행위능력이거나 비판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 감각적, 폭력적 내용만을 자주 접촉 또는 노출하게 될 때, 불건전한 인격형성을 이루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음란한 내용일수록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선정적인 글, 화면, 퇴폐적·폭력적 장면들은 성장, 성숙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을 파괴하고, 성비행, 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중매체의 폭력물, 성적물 노출 및 접촉을 제1차적 효과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인 기억이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공격성향 내지 성적 충동이 촉발되고, 그 후 제2차적 효과로서 공격행위 또는 성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에 따른 행동적 효과 과정을 추론해 보면 ① 대중매체 폭력물이나 성적물을 많이 접촉한 사람은 폭력적, 성적 내용물에 대한 지각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광범위하고 ② 평상시 공격충동, 성적충동 정도가 높으며 ③ 폭력물이나 성적물에 대한 접촉이 일어나면 공격행위, 성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개인적 요인

청소년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청소년이 학교, 가정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의 결핍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문제행동에 이르게 되는 청소년들의 능력적 요소, 성격적 요소, 행동적 요소 등 문제행동에 관련된 개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저조한 학습수행** : 문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과업인 학업성취에서 실패하고 있다. 물론 학업성취 실패는 다양한 하위요인들이 연관되어 있다.

첫째, 저조한 학습성취는 개인의 기본지적능력 및 학습능력의 결함과 관련있다.

둘째, 저조한 학업성취는 선수학습의 부족과 관련있다.

셋째, 저조한 학업성취는 구조화된 학습환경에의 내인성 부족과 관련있다.

넷째, 저조한 학업성취는 학습 이외의 관심사 혹은 학습 이외의 관심사와 학습과제 사이의 조화능력의 부족과 관련있다. 최근의 중퇴 청소년 중에는 학습 이외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퇴를 선택하는 청소년이 있다. 이들은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 **또래관계의 불편 및 영향** :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이유는 또래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거나 불량친구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또래관계의 불편으로 인한 문제 행동은 또래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둘째, 또래관계로 인한 문제 행동의 하위유형 중에 하나는 불량교우와의 사귄과 그 영향이다.

● **교사관계의 불편** :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들과의 관계 불편에 있다. 교사들과의 관계 불편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반항심, 적개심을 유발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다른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 행동에 이르게 한다. 첫째, 교사와의 관계 불편은 권위인물이나 교칙에 대한 반항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 불편은 교사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식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 **성격요인** : 문제 청소년의 특징을 성격 측면에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낮다.

둘째, 충동조절능력에 결함이 있다.
셋째, 긍정적인 성인과의 유대감이 약하다.

물론 위와 같은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단독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문제행동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 인	관 련 된 사 건
저조한 학습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적능력의 결함 · 선수학습의 부족 · 학습의욕의 상실 · 구조화된 학습환경에의 내인성 부족 · 학습 이외의 관심사
또래관계의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교적 성격 · 또래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내인성 부족 ·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 · 불량교우와의 밀착
교사관계의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체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 · 폭력교사 등에 대한 대처방식의 부족 · 교칙 등에 대한 반항적 태도
가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내인성 부족
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오남용 · 폭력 · 각종 일탈 행위
성 격 변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자아존중감 · 충동조절능력의 결함 · 긍정적인 성인과의 유대감의 약화

IV.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방향

청소년 문제는 가장 예민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딪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행동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 욕구좌절, 갈등, 문제의식 등 그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청소년들의 아픔과 고민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도의 방향과 실천을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로, “올바른 청소년상”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청소년 지도의 방향모색은 우선 명백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지도의 문제는 ‘문제’라는 부정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像’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첨가되어야 그 포괄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으로 지도해야 할 청소년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과 지도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청소년기는 자아의 발견을 통한 자기확립의 시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자기확립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자율적 사고와 자주적 행동을 지향하는 지도가 요망된다. 왜냐 하면 청소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해 보는 자기지도력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율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소년은 지금 가치관의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여 일관성있는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사회에서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로서 크게 강조해야 할 것은 정신적인 건강이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특성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강인한 의지력이다. 역경과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강인한 의지력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바르고 건전하게 지도·교육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원칙과 지도 지표로는

- 소수의 이른바 문제 청소년의 문제행동보다는 정상적인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조장하기 위한 지도력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 지도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청소년의 육성과 지도라는 관점

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 청소년 지도의 대책과 실재는 자율과 타율을 발달단계를 따라 조화시켜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 지도의 방법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상과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벌이 조화를 이룰 때 그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 청소년 지도는 문제의 해결이나 사건의 처리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어떤 인간으로 육성할 것인가라는 능동적인 자세에서 출발해야 하며 치료나 교정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 나가야 한다.

- 청소년 지도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기하는 데 있다.

둘째로 청소년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바르게 지도되어져야 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장이 있다고 하여도 가정보다 더 좋은 교육장이 있을 수 없고, 가장 훌륭한 교육자라고 해도 부모보다 더 좋은 교육자는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 사회교육을 통한 부모교육의 강화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많은 부모들이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생활하는 경향이 많다. 더러는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모의 교육관에 의하여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모 자신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 올바른 교육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

- 부모결손 및 부재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부모부재나 결손가정 현상으로 인한 자녀교육에의 역기능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적인 각성이 수반되어 가능한 한 가정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몽, 상담 등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가정을 훌륭한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지도는 가정·학교·사회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상호 유기적인 통합 및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가정은 자녀교육을 위한 제1차적 집단이며, 건전한 지도·육성·보호의 제1차적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물리적·심리적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부모는 이러한 교육적 환경조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부모를 훌륭한 교육자화하여야 한다. 학교 교사만이 교사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부모는 자

녀들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정서, 성격, 가치관 교육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청소년 지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다. 가족구성원들은 생리적·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행동규범이나 도덕적 가치가 형성된다고 볼 때 모든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들과 항상 대화하여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또한 문제를 확인하여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예방·해소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때 건전한 자녀지도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청소년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의 건전한 문화를 지니도록 육성할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전적이며 탐색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문화적 풍토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즉, 성인문화의 어두운 면이 정선되고 걸러냄이 없이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성적 자극물의 범람과 유입, 그리고 이들을 부추기는 상업적 행위, 또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부족 등 무수한 제약 조건들을 청소년들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그릇된 성인문화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선별·단속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오염시키는 성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행위를 계도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학교지역 중심의 청소년 센터와 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청소년 지도자(교사와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 상담전문요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물질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정화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환경에 의해 제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조형되고 가꾸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와 신념을 가진 존재로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수용하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청소년 개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불

안 등 심리적 억압은 건전하게 표출할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오히려 왜곡되어 변질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누적적인 불쾌한 경험들이 위험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된 감정과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상담은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충동과 자극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딪치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상담전문교육을 통한 상담기술 습득은 청소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학생들과 효과적인 지도·조력관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긍정적 존중으로서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학생의 행동, 태도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하지 않으며 따뜻한 수용을 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자신의 자기 이해와 긍정적 변화를 위해 학생의 자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학생을 진지하게 신뢰하면 할수록 학생은 더 자유스럽게 자기탐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학생은 그의 자아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내적 경험과 그가 강하게 방어해왔던 부분이 그의 의식과 행동으로 점차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공감적 이해로서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의 현상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바대로 학생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학생의 현상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의 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교사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 그의 의사결정문제, 불안, 좌절, 환경적 압력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 순간에 느끼는 경험에 솔직해야 한다. 그의 솔직함이 긍정적 지각의 태도에 스며들고 이것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경험되는 바에 집중하여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교사는 편견이나 판단없이 학생의 견해, 태도, 존재가치 등 하나의 존귀한 인간으로서 학생을 받아주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학생지도과정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은 교사의 모든 면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뢰인 것이다.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면 학생은 자신의 사고, 감정, 문제와 갈등, 의견교환이 솔직하게 전달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지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솔직하고 믿음직한 감정과 태도를 보이고 인내와 협동으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개방적이어야 학생도 신뢰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동료상담자를 양성해 활용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또래 친구들로부터 가장 큰 심리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문제해결 기술들을 교육·훈련시켜 주어, 동료 학생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상담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학생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동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면 그 어떤 개입보다도 가장 효과가 있게 된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한유진(1996). 비행청소년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pp 91~104.
- 김성이(1992). 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보호방안,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 한국청소년학회.
- 김소연(1986). 한국 중학생의 비행화 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 외(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숙(1998). 관계와 문제, 청소년문제론, 청소년대화의광장.
- 류주연(1994). 청소년 비행의 환경적 요인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대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규(1996).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인심(1996). 비행학생의 학교조직관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태수(1993). 제주청소년 비행의 특성과 예방,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
- 송 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실태와 대책,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송광정 외(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심용철(1992).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맹.
- 옥일남(1991). 교실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생소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윤정환(1988). 지도성 유형과 학급의 사회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1995). 청소년비행 동기요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외(1981). 청소년 문제 종합진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 선도 대책, 진로교육연구, Vol. 7.
- 조영숙(1998). 청소년 지위비행에 대한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 부산대 교대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대화의광장(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40.
 (1997). 청소년문제론, 청소년대화의광장.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 3, 서원.
- 한준상(1990).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연대출판부.
- 허철수 외(1998). 잠재적 중퇴원인과 상담지원정책 연구, 제주도.
 (1997). 제주청소년 문제와 해결방안, 제주청소년연구 제1집,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잠재적 중퇴생의 전조행동 특성과 가정에서의 개입, 청소년 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1999).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교육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문제와 대책 세미나 자료집, 제주도·제주지방검찰청.

Wolf & Gedo(1980),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Abstract>

Formative Factors of Juvenile Problem Behavior and Effective Guidance

Hur, Chul-Soo

I . Several Viewpoints on Juvenile Problem Behavior

A different guidance can be applied depending on the standpoint from which we are viewing the problems juveniles are going through.

Firstly, the guidance chosen can depend on whether we are looking at those problems as the process or as the deterministic result. The former means we treat the problems as nothing more than tasks all juveniles inevitably confront and have to go through, deriving from the process of their growth. In this regard, the guidance is focused on preventive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views the juvenile problems as social ills, takes a gloomy and negative view and considers them just like an inveterate or malignant disease or even a sin. Consequently, their guidance is concentrated on prohibition and compulsion.

Secondly, the guidance selection can also depend on whether our concerns about the problems are based on a social stance or on a human stance. Their delinquent and insubordinate behavior invite a great deal of criticism. However, we need to consider their anguish, worries, frustration, conflicts and the like which are ingrained deep in their subconscious from a human stance.

Thirdly,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juvenile problems are a reflection of an adult society. Their problems are not created in their own separate world. What they see, feel and interpret, how they behave and how they think are learned from adults.

II. Comprehensive Factors Causing Juvenile Problem Behavior

School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following cases: when the school does not detect and correct in its early stages the fact that the juveniles do not feel a strong attachment to their school or are losing their sense of attachment. This kind of attachment loss results from the failure of a successful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or peers or from poor progress of school records.

Household factors are a single parent family, inappropriate fostering surroundings, family members' personal problems,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or other crucial family incidents, which lead to the juvenile problems, too.

Social factors are found in the case that the juvenile is tempted by other out-of-school surroundings, not attracted by a household or a school.

Individual factors include the juvenile adaptability to home, school and society situations, their personality and a behavioral factor.

III. Effective Guidance of the Juvenile

Firstly, juvenile guidance should not only look at the negative side, "problems" but also at the positive side, "growth and process".

Secondly, a family factor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other factors. The home discipline should be strengthened and a social climate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a single-parent family or broken home.

Thirdly, circumstances for a sound juvenile culture should be provided.

Finally, parents and teachers need to be expert counselors.